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다각화

지역화폐 10% 할인 연장...전통시장·위생업소 시설 개선 대출 이자 보전·창업 자금 용자 지원...공공배달업 활성화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의 돌파구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한 제감형 종합대책을 수립,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 소상공인 창업·운영자금 용자 지원,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 직·간접적 금융 지원을 비롯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와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또 시는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4개 업체의 대출 역 이차보전에 8400만 원을, 창업·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주민소득 용자 지원 사업을 신청한 8개 업체에 3억50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골목상권 소비 진작, 자금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나주시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기존 9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올 연말까지 연장했으며 11월 말 기준 1181억원 규모 판매고를 올렸다.

시는 대기업 배달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과도한 중개 수수료 절감을 위해 전남도에서 개발한 공공배달앱인 '막개비' 운영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11월 기준 관내 음식점 전체 8.2%인 373곳이 가맹점으로 입점했으며 지속적인 업소 방문을 통해 공공배달앱 이용 혜택 등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 일부를 지원해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음식점 28곳에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입식 테이블 전환, 바닥·화장실 보수, 도색·도배 등 시설 개선 자금의 50%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다.

골목 상가와 더불어 민생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

장에 대해서는 남평5일시장, 영산포풍물시장에 각각 5억6000만원과 4억2700만 원을 투입해 LED조명설치, 점포 개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간판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나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 어려워진 경영 환경 예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더민주소상공인위원회 김준정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상가번영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 20여명의 소상공인 단체 대표자와 황광민 나주시의회 부의장, 김정숙, 박소준 시의원,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상가 공실 활용, 상권 인구 유입 정책 추진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민석 나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내년도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json@



이병노(오른쪽) 담양군수가 최근 화재가 발생한 창평전통시장에서 전남도 관계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담양군, 창평전통시장 화재 복구 총력

대응팀 구성 종합대책 마련...임시 점포 설치·주차장 마련

담양군이 창평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담양군은 창평 전통시장 주차장에 화재 사고 대책 임시사무실을 설치, 행정인력 2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등도 현장에 파견해 상인의 피해 접수 및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지원대책 및 금융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화재사고 대책 대응팀을 구성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신속한 시설복구와 피해 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빠른 시일 내에 시장 인근에 몽골형 천막과 컨테이너로 임시 점포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해 임시시장을 개장할 계획이며, 화재가 발생한 전통시장 구역은 철거 후 전면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상인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빠른 시일내에 임시시장을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전통시장 재건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애물단지' 강진항 재취항, 마량 주민들 나선다

추진위원회 구성, 관계기관과 어촌계 사업 협의 지원 노동자 1만여 명·화물차 120여대...지역경제 활력 기대

강진군민들이 단 두 차례의 화물선 운항을 끝으로 애물단지 신세가 된 강진항(광주일보 11월 29일자 13면 보도) 재취항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9일 마량면 주민들은 2017년 10월 이후 중단된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을 위해 정삼군(전 강진군의회 의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장, 강진군수협 이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 추진위원회는 화물선 취항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관계기관·항로주변 어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강진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250억 원을 들여 2016년 3월 준공됐으나, 원활한 항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2017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마량항에서 제주항까지 운항한 화물선을 끝으로 운항이 잠정 중단됐다.

화물선이 재취항 길에 오르며 제주 서귀포·성산항과 강진항을 오가며 제주에서는 물, 삼다수(생수), 굴 등을 선적하고 강진에서는 공산품 등을 선적하게 된다.

접안료 등의 항만사용료와 연인원 1만여 명의 항만노동자를 유지하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25t 화물차 120여 대가 화물을 선적·하역하며 숙박업소와 식당, 일반상가 등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

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항로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협의해 지난 8월부터 '항로 확보를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진행 중이다. 3000t급 화물선 취항 시 조석, 조류, 파랑 관측, 항주파 영향 검토 등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거친다.

군은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항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기관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예정항로 시범운항, 어촌계 의견 청취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마량에서 제주간 화물선 운항을 재개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성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화순군, 제5기 도시재생대학 개강...내년 1월까지 운영

화순군 제5기 도시재생대학이 지난 8일 개강하고 7주간의 여정에 들어갔다. <사진> 화순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생이카데미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하는 제5기 도시재생대학을 내년 1월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에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주민협의체 회원 20여 명이 교육생으로 참여한다.

교육생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올바른 이해 ▲유형별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 ▲마을활동가의 역할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등 도시재생 기초 이론을

배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난 4기까지 교육 과정을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신규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준공을 앞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발굴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뤄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도시재생지원센터(061-379-3640)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이제 손주한테 편지 쓸 수 있당께"

나주시, 성인 문해교육 성향 도자기 만들기 등 특강 병행

나주시가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어르신들에게 평생학습을 통해 읽고 쓰는 즐거움을 선물해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가 노년층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해온 '은빛 배움터' 성인 문해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2년 차를 맞은 문해교육은 지난 5월부터 참여 신청을 통해 12월까지 세지면 죽동마을 등 8개 마을 어르신들 총 62명을 대상으로 90회 과정으로 진행됐다.

문해 교육은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자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 문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강사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초 문해 능력 교육부터 '편지쓰기' '끝맺기 놀이' '노래 가사 써보기' 등 눈높이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 평생학습인 '은빛 배움터' 문해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여기에 '장구 연주' '도자기 만들기' '가족공예' 등 다양한 체험 특강 프로그램도 병행하며 교육에 풍성함을 더했다.

나주시 평생학습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운영상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평생학습 참여자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해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보람차고 뿌듯했다"며 "내년에도 마을 곳곳에 은빛배움터를 확산시켜 어르신들의 노년 생활에 배움의 기쁨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12월호

2022년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22

수고했어, 올해도

- 한 해를 보내며, 치유의 시간을
- 가볍게 떠나고 싶다면 이곳으로
- 송년의 헛헛함, 책과 영화로 채우세요

영도 오디세이

美路味路

'생태관광 일번지'의 따뜻한 여행
목적은 푸근하다

겨울정미와 증기기관차 섬진강 기차마을 | 태안사 숲길
시그나리와 압록 상상스쿨 | 대항강 출렁다리
'가랑드' 토란 베이커리 | 깔끔한 맛의 토란 막걸리
정원카페 'OIDORA'와 '디트레인' 베이커리

2022

송년기획 - 2022 문화계 걸신

문학 '문학의 연대'와 문학상 수상작들 눈길
전시 거장의 작품 만나는 대형 전시를 주목
공연·영화 다양했던 연극 공연,
뜨거웠던 '임운찬' 무대

에ditorial

‘섬김의 리더십’ 전하는 이태석재단 이사장
구수환
"공감·봉사·섬김의 삶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클릭, 문화현장

언제 가도 최고의
예술이 있는 곳
과천국립현대미술관

기획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② 서울

‘어둠 찢고 나라를 지키다’
묵직한 공간에서
숙연한 감동

필름 전시 - 조르주 루오전

“루오의 ‘미제레레’가
건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평인의 ‘예술가의 한 끼’ ③

“조각가는 농부 마음 가져야”
박흥출, 농사 지어 지급자족

스포츠 이야기

KIA타이거즈 마무리 캠프 특별했던 열기
“제주도에서 시작을 향해 뛰었다”